

통사하는 불교 신사서원 02)745-8503
 01)286-2680 서울상봉구상봉동
 심상선원 04)734-2680
 대진본사시안산면 송정리

법석 조대 성운 스님 대만 불광산 개산종장



"우리는 지혜의 빛으로 미망을 깨뜨려 본래 있는 '부처의 성능' 즉 불성을 드러냄으로써 마음을 잘 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정한 참선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비밀들을 철저하게 일어서 스스로의 감추어진 보배들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웃위해 '희망의 등'을

아직 부처님오신날(5월 19일)이 한달여 남았지만 벌써부터 불자들은 가족의 원찰이나 인근 절을 찾아, 개인적인 소망이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며 등불을 밝히고 있다. <현우경(賢惠經)> 빈녀난타품(貧女難陀品)에 나오는 가난한 난타의 정성스런 빈자등(貧者一燈)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등 공양은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을 발원하는 소중한 신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등 공양의 의미를 살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연등 불사가 불자들의 발심을 기다리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생명나눔실천회, 교구신도회가 공동주최하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가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나누는 기쁨, 희망의 불교를 주제로 한 '희망의 등 밝히기'는 신도 또는 단체들이 불교

등을 달 때 별도로 '희망의 등'을 달면서 이웃을 위한 축원발원의 형태로 '○○가○○를 위해'란 꼬리표를 달아, 일정한액의 보시금을 원하는 복지단체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불우이웃 돕기' 등 달기다.

조계사, 봉은사, 수덕사, 한마음선원 등 큰 사찰과 생명나눔실천회, 우리는선우, 교구신도회 등 신행단체들이 적극 동참하게 될 이 행사는 개인적, 가족적인 신령문화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최측은 10년간 장충공원에 봉축 '자비의 등'을 달아 보시금을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게 희망해 온 우리는선우와 지난해부터 '이웃을 위한 등'을 달아온 조계사의 경험을 전국 사찰로 확대해, 봉축기간 이후에도 보시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사찰 및 신행단체가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나 개인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토록 하고, 모범적인 신행문화는 발굴해 불자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백장기 중앙신도회장은 '희망의 등을 다는 불자들은 자신이 켜는 환한 등불로 모두가 잘 사는 정토사회가 구현되기를 발원하자'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문의 02)733-7277. 김재경(취재1부 차장)

전통사찰 경제적 가치 국립공원의 80%까지

국립공원 제도개선특별위 세미나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현재 1300~1900원 정도 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최고 23,245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통사찰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국립공원의 가치의 80%까지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와 현 국립공원 관련 담료를 최고 23,245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통사찰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조계종 국립공원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원택)는 16일 조계사에서 개최된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책세미나'에서 국립공원에 위치한 해인사, 내장사, 불국사, 선유사, 천은사 등 전통사찰의 가치가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의 최고 80%에서 최저 50%를 차지한다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17명을 비롯 50여명의 사부대중이 9일 북한산 송추현장을 방문, 관동도로 결사지지 결의법회를 개최 송추=고영태 기자

불교정보화 조사 적극 동참

조계종 총무원, 산하 300여 사찰 방문 파악기로

조계종이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 산하 300여 사찰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은 9일 총무회의를 통해 종단협과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교정보화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와 협의를 통해 조계종 산하 사찰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무원이 직접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내 정보화 실태 및 욕구측정을 통해 정보화 관련 정책을 활성화 하고 정보네트워크 형성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설문문항을 일부 조정해 면접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관 부서인 총무원 기획실은 11일 면접조사 대상 사찰을 정하고 전국 교구본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9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가진 월례회의에서 종단협과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하고 있는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불교계를 위한 바람직한 자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사주지연합회는 현대불교신문사로부터 불교정보화실태조사의 목적과 취지,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좋은 결과를 통해 불교계의 정보산업 분야가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임연태 기자 ysim@buddhapa.com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설악산 선유사, 속리산 법주사, 지리산 천은사 화엄사, 가야산 해인사, 내장산 내장사 등 6개 지역 7사찰을 2001년 내방한 탐방객 2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가야산에 대한 최대지불의사 금액 29181원 중 해인사는 23245원을 차지, 해인사의 경제적 가치가 가야산 국립공원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장사의 경제적 가치를 24803원의 80%에 이르는 19701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산악형 국립공원의 경우 전통사찰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게 분석됐다.

또 전통사찰은 종교·생태·문화·휴양·관광 유산적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가 평가에서도 8~9등급에 이를 정도로 양호한 실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주변산지가 사찰경내지로 편입되면서 자연보호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립공원 탐방객 중 83%가 전통사찰의 경내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중 80%가 전통사찰 경내지가 국립공원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면적이나 위치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전통사찰의 종교적 가치, 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휴양적 가치, 관광적 가치, 유산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해 묻는 26개 문항의 답변에서 일반 국민들은 전통사찰의 종교적 가치에 비해 유산적 가치나 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대답했다. 이는 종교적 분위기를 저해하는 주변상가 등 환경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돼 전통사찰이 일반적 관광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이런 연구에 참여한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는 "탐방객들이 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을 공익적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공익정책개선 및 사찰가치 홍보 방안을 정하여, 국립공원과 전통사찰의 조화·상호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북한산 훼손땀 산문 폐쇄"

법장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 17명 '현장' 방문

수덕사, 불국사, 봉은사 등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17명은 9일 의정부 송추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공사를 강행할 시 산문폐쇄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본사 주지스님들과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태스님, 중앙신도회 백장기 회장, 국회 환경취급 김문수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장 법장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공사 강행시 LG건설을 해체자로 규정하고 LG제품 불매운동과 산문폐쇄, 국립공원 해체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

고 천명했다. 법장스님은 또 "도로는 인간을 위해 건설되는 것인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오히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를 즉각 철회하고, 수행자를 폭력한 LG건설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찰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중앙신도회, 대법청 등 5개 단체는 24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가하는 '자연환경 파괴·수행환경 훼손하는 정부 여당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강유신 기자

법전스님 18일 종정 추대식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조계종은 제 11대 종정 도립 법전 대종사의 종정추대식을 오는 4월 18일(목)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이날 종정 추대식은 도량계, 속법공양, 명종,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발, 행장소개, 추대사, 등단 봉행, 불자봉정, 법장봉정, 청법계, 입정, 축가, 사후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대식에서는 전국 조계종 본말사 주지 스님을 비롯 5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예경삼배를 올리고 종정 법전스님에게 법어를 받는 의식이 치러진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열리는 종정 추대식을 (주)웹미디어뱅크의 협찬으로 인터넷(buddhism.or.kr) 생중계한다.

김원우 기자 wwm@buddhap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환경 수호

1. 사찰의 수행환경 수호를 위해 불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 정책 견제
- ②불교 환경운동의 네트워크 구축
- ③사찰환경의 중요성 홍보
- ④환경운동 기금 마련 ⑤기타

2. 불자님은 불교환경 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4월 1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6호 9면에 실습니다.

알림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동 진행회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조사를 취소하고 전화, 우편, 방문조사를 하기로 함에 따라 총무원리프로그래밍 무상제공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道

몸은 지구요, 마음은 허공

새 법당 문 여는날

초대합니다

1991년 8월 대광빌딩 임대 개원 불자님들의 수행의 길

때로는 눈물 때로는 환희

어두웠던 영혼 깨워 신천년 큰 법당으로 화하였습니다. 일체제불과 함께하는 준공법회에 모든 생명을 초대합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장 혜 계
신도회장 김우룡 회장
배법림

●일시: 불기2546년 5월1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www.hanmaum.org Tel.(053)767-3100

●대구총판: 132-07-006435-8 김우룡(한마음선원) ●발행: 150016-51-030415 김우룡(한마음선원)